

# 일인가구 소비자의 소비패턴과 삶의 만족도

## - 중·고령 소비자를 중심으로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상학부 소비자정보학 전공, 김시월\*, 조향숙\*\*

최근 우리나라의 가족 변화를 살펴보면, 가족의 해체, 미혼가구의 증가, 남녀의 수명 차이 등으로 다양한 가구 유형 중 일인가구가 증가(조만, 이창무, 2014; 김시월, 조향숙, 2012; 통계청, 2012)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과도기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일반적인 가계의 형태로 자리 잡아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여윤경, 2003; 심영,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증하는 중·고령 일인가구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인가구의 소비패턴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중·고령층 일인가구의 연간 소비지출액은 8,308 천 원이었고, 비목 중 식비, 광열비, 보건의료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었고, 피복비, 문화생활비, 교육·보육비는 거의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고령층 일인가구의 소비패턴 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식비중심형, 다양한 활동형, 주거비중심형, 보건의료비중심형 소비패턴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중·고령층 일인가구 소비자의 삶의 만족도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요인I: 인간관계만족도, 요인II: 경제/건강/여가만족도로 명명하였다. 중·고령층 일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요인I: 인간관계만족도는 보통수준보다 약간 높았고, 경제/건강/여가만족도는 보통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고령층 일인가구 소비자의 삶의 만족도에 연령대와 소비패턴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요인I: 인간관계만족도에는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요인II: 경제/건강/여가만족도와 전체 삶의 만족도에는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중·고령 일인가구의 소비패턴을 밝히고, 삶의 만족도 향상에서 소비패턴이 가지는 중요성을 파악하여, 향후 일인가구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마련과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핵심단어: 일인가구, 중·고령 소비자, 소비패턴, 삶의 만족도

\*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E-mail: [october@konkuk.ac.kr](mailto:october@konkuk.ac.kr), 주저자

\*\*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강사, E-mail: [chosuk3@hanmail.net](mailto:chosuk3@hanmail.net), 교신저자

##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의 가족 변화를 살펴보면, 가족의 해체, 미혼가구의 증가, 남녀의 수명 차이 등으로 다양한 가구 유형 중 일인가구가 증가(조만, 이창무, 2014; 김시월, 조향숙, 2012; 통계청, 2012)하고 있다. 노인 일인가구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추세와 더불어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 일인가구의 증가는 과도기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일반적인 가계의 형태로 자리 잡아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여운경, 2003; 심영, 2002).

일인가구는 한사람만으로 구성된 가구(김재형, 2008; 조성철, 2012; 차경욱, 2006)를 의미하는데, 일인가구와 혼재되어 사용하는 용어로는 단독가구, 단독가계가 있다. 단독가구란 자녀 및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독립된 가구 형태로 독신 또는 부부만으로 생활하는 독립된 가구로 가구 내 구성원이 일인 단독으로 구성된 경우를 의미한다(채옥희, 2000; 네이버국어사전, 2013). 핵가족화와 소가족화의 진전으로 일인가구의 구성비가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였는데(통계청 1990, 2012; 반정호, 2012), 이러한 현상은 실용주의적 가족가치관 대두에 따른 가족개념의 약화, 개인주의 심화, 생활 편의성 증가, 초혼연령 상승 및 혼인을 감소, 고령화 등이 크게 작용하였다. 출산율의 감소와 의학발달로 인한 사망률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노인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핵가족 중심의 가치관과 가족구조의 변화, 자녀들의 책임의식 감소 등으로 노인인구 중 노인 단독가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여운경, 2003, p.1).

일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일인가구가 증가한 이유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노인 일인가구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맞물려 있으며(반정호, 2012; 유병규 외, 2010), 70세 이상의 고령자의 구성비가 높다고 하였다(변미리, 2009). 중·고령 일인가구의 경제수준과 소비패턴을 살펴보면 소득은 다인가구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변미리, 2009; 유병규 외, 2010; 김시월, 조향숙, 2014)가 있으며, 사별 후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에 비하여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 참여, 본인이 전적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비율이 오히려 높다는 연구(송유진, 2007)도 있어 상충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회의 노인은 노동시장 참여가 강제되고, 또 이들의 낮은 노동시장 성과는 노년기 경제적 어려움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 특히 일인가구의 경우 그 무게가 가중될 수 있다(김시월, 조향숙, 2014; 서병숙, 이신숙, 1991; 김성희 외, 2002; 반정호, 2012)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개념(김시월, 조향숙, 2013)으로 많은 연구에서 소득이나 자산(이선형, 1995; 강성호, 이병인, 2009)이 정적인 영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독신여부는 비목별 소비지출액이나 그 구성비에 차이가 있어(여운경, 2003; 심영, 2002; 최승균 외, 2012) 소비지출패턴을 하나로 단순화하여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였다(전상민, 201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인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나 소비패턴을 살펴본 연구(전상민, 2013; 여운경, 2003; 심영, 2002; 신민경, 2014)는 일부 있으나 경제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정운영, 정세운, 2011)는 많지 않다. 특히 중·고령 일인가구의 소비패턴과 삶의 만족도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소비자를 중심으로 일인가구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밝히고, 삶의 만족도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또한 연령대와 소비패턴 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중·고령 일인가구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알아본다.

둘째, 중·고령 일인가구 소비자의 삶의 만족도의 유형을 알아본다.

셋째, 중·고령 일인가구 소비자의 연령대와 소비패턴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이러한 연구는 중·고령 일인가구의 소비패턴을 밝히고, 삶의 만족도 향상에서 소비패턴이 가지는 중요성을 파악하여, 향후 일인가구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마련과 교육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중·고령 일인가구 소비자의 소비패턴과 삶의 만족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기 전에 일인가구의 개념 및 특징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우선 일인가구 또는 단독가구는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로 실질적으로 함께 살고 있는 사항이 일인인 독립된 가구로 자녀 및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독립된 가구 형태(채옥희, 2000)로, 가구 내 구성원이 일인 단독으로 구성된 경우를 의미한다(네이버국어사전, 2013; 안경숙, 2005; 이해원, 1998). 유병규 외(2010)에 의하면, 일인가구는 저소득으로 인한 빈곤화 심화, 평균연령의 상승과 고령화, 단순노무 및 무직군의 증가, 여자일인가구의 높은 비중, 고소득 가구의 증가로 인한 소득 양극화 조짐, 주거비 지출 비중의 증가, 비소비지출의 증가 등의 구조적 특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중·고령 일인가구 소비자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함께 생활하는 일반 노인들보다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어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고독감을 경험하고 있다(김시월, 조향숙, 2013).

중·고령 일인가구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아, 중·고령층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영애(2013)는 2012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일인가구를 유형화하였다. 34세 이하, 35~64세 이하,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일인가구의 소비패턴을 유형화한 결과 청년층 일인가구는 다양한 활동지향형이 가장 많았고 음식숙박비지출 중심형, 주거비지출과 교통지출 중심형 순으로 분류되었고, 중장년층 1인가구는 음식숙박비지출형이 가장 많았고, 식료품비지출 중심형, 주거비지출 중심형, 교통비지출 중심형 순으로 분류되었다. 65세 이상 일인가구는 식료품비지출 중심형이 가장 많았고, 주거비지출 중심형, 균형지출형과 보건비지출 중심형으로 분류되었다.

전상민(2013)은 2012년 7차년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일인가구의 소비지출 패턴 유형을 파악하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칩거생활지출형과 사교적 가정생활지출형, 의료비지출형, 월세·교통비지출형 등 다섯가지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칩거생활지출형과 의료비지출형이 60~70대는 사교적 가정생활지출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Denton 외(2006)는 1969년, 1978년, 1992년과 1996년 캐나다 FAMEX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들의 소비지출 배분과 연령에 따른 지출패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은퇴 전후의 패턴에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았는데, 예산 배분은 소득의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Abdel-Ghany, Mohamed 와 Deanna L. Sharpe(1997)는 미국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1990년 CE 서베이(Consumer Expenditure Survey)의 노인가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젊은 노인(Young-old)과 고령 노인(old-old)의 소비패턴을 연구하였다. 65세에서 74세의 젊은 노인과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의 소비패턴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수 토빗 분석(Multivariate Tobit)을 실시한 결과 집에서 식비, 외식비, 술과 담배값, 주거비, 의류비와 의류서비스, 교통비, 의료비, 엔터테인먼트, 개인관리비(personal care)와 개인 보험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eonglim Lee 외(2011)는 노인가계의 소비 패턴을 연구하기 위하여 미국 CE 서베이(Consumer Expenditure Survey)의 2002~2003년의 65세 이상 노인가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Altruistic givers, Impatient self-treaters, Basic need-meeters, Burdened by Healthcare expense, Burdened by housing expense, Have it-alls, 그리고 Happy Retirees 등 7개의 군집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미국 노인의 소비패턴은 그들의 경제 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개념(김희주, 주경희, 2008;

김시월, 조향숙, 2012)으로 개인의 생활만족도 혹은 전반적인 삶에 대한 평가로 접근하고 있다.

임연옥 외(2011)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베이비붐 세대와 노부모 세대를 비교하였는데, 경제적 상태가 두 세대 모두의 공통적인 주요 영향 요인이었고, 정순돌, 이현희(2012)의 연구에서도 중고령 대상자인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여가활동평가, 주거환경평가, 가족관계평가, 임금, 취업안정성 등이 유의미한 변수라고 하였다. 서지원(2012)도 중·고령 소비자인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만족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취업한 경우는 가구총소득, 가구총자산, 가구 총부채가 주요 영향요인이었고, 취업하지 않은 경우는 가구총소득과 가구총자산만 유의한 영향을 보이고 가구총부채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김시월, 조향숙(2013)은 중·고령자인 베이비붐 세대의 재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근로소득원수, 가계총소득, 가계총부채가 유의한 영향변수이나 취업자와 비취업 집단의 재정상태와 삶의 만족도의 경로 간 영향력은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중·고령자의 소비패턴은 다른 세대의 소비패턴과 차이를 보여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경제적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주요한 변수임을 알려주고 있다.

### III. 연구 문제 및 방법

#### 3.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중·고령 일인가구 소비자의 소비패턴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각 유형별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고령 일인가구 소비자의 삶의 만족도는 어떻게 유형화 되는가?

연구문제 3. 중·고령 일인가구 소비자의 연령대와 소비패턴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어떠한가?

#### 3.2 분석대상

본 연구는 2013년도에 실시한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5차년도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5차년도 자료는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25개 지역 별로 주택의 특성, 산업별, 취업자 수, 행정구역 등을 분류지표로 삼아 조사구를 분류하고 확률비례 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원가구 3,749가구, 신규가구 60가구, 추가가구 1,201가구 등 통합표본으로 1955년에서 1962년 생 가구원이 있는 가구원 8,411명을 표본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5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50세 이상의 가구원 중 조사시점인 2013년 기준 동거가구원수가 1인인 가구로 일부 답변이 부실한 자료를 제외한 1,04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3.3 측정도구 및 변수

측정도구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개발한 설문지 변수 중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추출한 변수로서 인구통계적 변수, 경제적 변수, 소비패턴과 삶의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표 1).

〈표 1〉 변수의 설명

구분	변수	변수 내용	문항수	
인구 통계 적 변수	연령	(비율 척도) 만 나이 × 세	1	
	성별	(명목 척도) 1. 남성 2. 여성	1	
	취업여부	(명목 척도) 1. 취업 2. 비취업	1	
	학력	(서열 척도) 1. 무학 2. 초등학교 졸 3. 중졸 4. 고졸 5. 대졸이상	1	
경제 적 변수	가계총소득	(비율 척도) 연간 가계총소득 × 천원	1	
	가계총자산	(비율 척도) 연간 가계총자산 × 천원 가계총자산 = 부동산자산 + 금융자산 + 기타자산	1	
소비 지출 액	연간 가계총지출	(비율 척도) 연간 가계총지출 × 천원	1	
	연간 소비지출	(비율 척도) 연간 소비지출 × 천원	1	
	연간 식비	(비율 척도) 연간 식비 × 천원 연간 식비 = 월평균 식비 * 12개월	1	
	연간 주거비	(비율 척도) 연간 주거비 × 천원 연간 주거비 = 월평균 주거비 * 12개월	1	
	월평균 광열수도비	(비율 척도) 연간 광열수도비 × 천원 연간 광열수도비 = 월평균 광열수도비 * 12개월	1	
	월평균 피복비	(비율 척도) 연간 피복비 × 천원 연간 피복비 = 월평균 피복비 * 12개월	1	
	월평균 교통비	(비율 척도) 연간 교통비 × 천원 연간 교통비 = 월평균 교통비 * 12개월	1	
	월평균 통신비	(비율 척도) 연간 통신비 × 천원 연간 통신비 = 월평균 통신비 * 12개월	1	
	월평균 문화생활비	(비율 척도) 연간 문화생활비 × 천원 연간 문화생활비 = 월평균 문화생활비 * 12개월	1	
	월평균 보건의료비	(비율 척도) 연간 보건의료비 × 천원 연간 보건의료비 = 월평균 보건의료비 * 12개월	1	
	월평균 가구집기 및 가사서비스비	(비율 척도) 연간 가구집기 및 가사서비스비 연간 가구집기 및 가사서비스비 = 월평균 가구집기 및 가사서비스비 * 12개월	1	
	연간 교육·보육비	(비율 척도) 연간 교육비 및 보육비 × 천원	1	
	연간 기타소비	(비율 척도) 연간 기타소비 × 천원	1	
	연간 비소비지출	(비율 척도) 연간 비소비지출 × 천원	1	
	소비 구성 비	연간 식비 구성비	(비율 척도) 연간 식비 × % 연간 식비 구성비 = (연간 식비 / 연간 소비지출) * 100	1
		연간 주거비 구성비	(비율 척도) 연간 주거비 × % 연간 주거비 구성비 = (연간 주거비 / 연간 소비지출) * 100	1
연간 광열수도비 구 성비		(비율 척도) 연간 광열수도비 × 천원 연간 광열수도비 구성비 = (연간 광열수도비 / 연간 소비지출) * 100	1	
연간 피복비 구성 비		(비율 척도) 연간 피복비 × 천원 연간 피복비 구성비 = (연간 피복비 / 연간 소비지출) * 100	1	
연간 교통비 구성비		(비율 척도) 연간 교통비 × 천원 연간 교통비 구성비 = (연간 교통비 / 연간 소비지출) * 100	1	
연간 통신비 구성비		(비율 척도) 연간 통신비 × % 연간 통신비 구성비 = (연간 통신비 / 연간 소비지출) * 100	1	
연간 문화생활비구 성비		(비율 척도) 연간 문화생활비 × 천원 연간 문화생활비 구성비 = (연간 문화생활비 / 연간 소비지출) * 100	1	
연간 보건의료비구 성비		(비율 척도) 연간 보건의료비 × % 연간 보건의료비 구성비 = (연간 보건의료비 / 연간 소비지출) * 100	1	
연간 가구집기 및 가사서비스비 구성 비		(비율 척도) 연간 가구집기 및 가사서비스비 × % 연간 가구집기 및 가사서비스비 = (연간 가구집기 및 가사서비스비 / 연 간 소비지출) * 100	1	
연간 교육·보육비 구성비		(비율 척도) 연간 교육비 및 보육비 × % 연간 교육·보육비 구성비 = (연간 교육·보육비 / 연간 소비지출) * 100	1	
연간 기타소비 구성 비		(비율 척도) 연간 기타소비 구성비 × % 연간 기타소비 구성비 = (연간 기타소비 / 연간 소비지출) * 100	1	
삶의 만족도		연간 통신비 = 월평균 통신비 * 12개월	1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통계적 변수는 연령, 성별, 취업여부, 학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적 변수는 가계총소득, 가계총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패턴은 연간 가계총지출, 비목별 소비지출액, 비목별 소비구성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비목은 식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피복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 보건의료비, 가구집기 및 가사서비스비, 교육·보육비, 기타소비로 구성되어 있다. 비목별 소비구성비는 각 소비비목을 연간 소비지출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이다. 삶의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집, 이웃관계, 경제적 상태, 친구관계, 가족관계, 직업, 건강, 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여가활동 등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3.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0.0을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의 기초 통계분석을 실시한다. 분석대상자의 소비패턴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각 유형별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카이제곱( $\chi^2$ )분석을 실시하였다. 삶의 만족도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소비패턴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연령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4.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2013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제5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에서 50세 이상의 중·고령 일인가구 1,045명을 유효 표본으로 하였다.

〈표 2〉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045(100.0)

변수		구분	빈도(%)	평균
인구 통계적 변수	연령	60대 이하	368(35.2)	71.50세
		70대	478(45.7)	
		80대 이상	199(19.0)	
	성별	남	195(18.7)	-
	여	840(81.3)		
취업 여부	취업	351(33.6)	-	
	비취업	694(66.4)		
학력	무학	337(32.2)	-	
	초등학교	425(40.7)		
	중학교	112(10.7)		
	고등학교 이상	171(16.4)		
경제적 변수	연평균 가계 총소득	1천만원 미만	587(56.2)	13,531.75천원
		1천만원 이상	458(43.8)	
	가계총자산	5천만원 미만	529(50.6)	93,705.08천원
		5천-1억 미만 1억 이상	231(22.1) 285(27.3)	

분석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수를 살펴보면 연령은 평균 72세로 70대가 45.7%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하

35.2%, 80대 이상 19.0%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이 18.7%, 여성이 81.3%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고, 비취업자가 66.4%로 취업자 18.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초등학교가 가장 많았고, 무학이 그 다음 순이었으며, 고등학교 이상, 중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변수를 살펴보면 연평균 가계총소득은 13,531천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 56.2%, 1천만원 이상이 43.8%이었으며, 연평균 가계총자산은 93,705천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 50.6%로 가장 많았고, 1억 이상 27.3%, 5천~1억 미만이 22.1%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령 일인가구 소비자의 소득이나 자산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서울의 1인가구 현황과 도시정책 수요를 연구한 변미리(2009)의 연구에서 1인 가구의 경상소득은 다인가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 소득은 다인가구의 33.2% 수준으로 경제적 상태가 다인가구에 비하여 좋지 않다는 연구와 유사하다.

## 4.2 소비패턴

### 4.2.1 비목별 소비지출액과 구성비

중·고령 일인가구 소비자의 비목별 소비지출액과 구성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간 가계총지출은 9,578천원이었고 소비지출은 8,308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3〉 비목별 소비지출액과 구성비

기간: 연, 단위: 천원

변수	소비지출액과 구성비		
	평균	표준편차	%
가계총지출	9,578.48	8,463.24	
소비지출	8,307.80	7,222.69	100.00
식비	2,896.39	1,946.39	38.97
주거비	715.41	3,515.21	6.74
광열수도비	1,007.15	890.71	14.22
피복비	359.64	487.24	4.29
교통비	673.25	937.94	7.73
통신비	439.81	377.64	5.87
문화생활비	213.90	357.04	2.47
보건의료비	1,143.79	2,618.43	12.88
가구집기 및 가사서비스비	150.40	923.04	1.00
교육·보육비	48.06	909.14	.17
기타 소비	150.40	923.40	5.65

비목별 소비지출액을 살펴보면 연평균 식비는 2,896천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액 중 약 39%를 차지하고 있어, 중·고령 일인가구 소비자의 식비 구성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주거비는 715천원(7%), 광열수도비 1,007천원(14%), 피복비 360천원(4%)으로 나타났다. 즉 일상생활 하는데 필수품인 광열수도비에는 일정금액의 돈을 지불하나 주거비나 피복비 소비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비 673천원(8%), 통신비 440천원(6%), 문화생활비 214천원(2%)으로 나타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통비나 통신비에는 일정한 돈을 지불하나 문화생활비는 2% 수준으로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 일인가구 소비자의 문화생활비는 2% 수준인 반면에 보건의료비는 연간 1,144천원(13%)로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의 고연령층이나 건강이 좋지 못하여 젊은 소비자에 비하

여 보건의료비가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보육비는 연간 48천원(1%)미만으로 거의 하지 않았고, 기타소비는 150천원(5.65%)로 나타났다.

50세 이상의 중·고령 일인가구 소비자의 소비지출을 살펴보니 식비가 약 39%로 매우 높았고, 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광열수도비가 14.22%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나 소비지출의 50% 이상을 식비와 광열수도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보건의료비가 12.88%로 3번째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분석대상자의 연령이 고령층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사료되고, 문화생활을 위한 소비지출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병규 외(2010)는 국내 일인 가구의 7대 구조적 특징을 연구하였는데 첫째, 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낮고 그 격차도 확대되어 빈곤화가 심화, 둘째, 일인 가구의 평균연령의 상승과 고령화, 셋째, 단순노무 및 무직군의 증가, 넷째 남성 일인 가구에 비하여 여자 일인 가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음, 다섯째, 일인 고소득자 가구의 증가로 일인 가구 내 소득 양극화, 여섯째, 일인 가구의 주거비 지출 비중이 높음, 여섯째, 비소비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후생수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4.2.2 소비패턴 유형

중·고령 일인가구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군집분석은 K-평균 군집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4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군집을 4개로 분류한 이유는 5개 이상일 경우 개별 군집의 개체 수에 많은 차이가 있고, 3개 이하인 경우 개별 군집이 설명력 있게 분류되지 않아 4개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군집1은 식비의 비중이 53.40%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다른 소비지의 비중이 미미하여 식비 중심형이라고 명명하였고, 군집2는 11대 소비지출 비목에 고르게 소비지출하고 있어 다양한 활동형, 3군집은 주거비의 비중이 높아 주거비 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4군집은 보건의료비가 다른 군집에 비하여 높아 보건의료비 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 즉 일반적 특징에 따른 군집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 분석과 카이제곱( $\chi^2$ )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연령을 살펴보면 다양한 활동형 소비패턴과 주거비 중심형 소비패턴은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식비중심형과 보건의료비 중심형 소비패턴은 높게 나타나 중·고령층 일인가구 소비자의 소비패턴 유형은 연령에 의하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소비패턴 유형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취업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취업한 일인가구가 다양한 활동형 소비패턴이 많은 반면에 식비중심형, 주거비 중심형, 보건의료비중심형 소비패턴은 비취업 일인가구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식비중심형은 주로 무학인 경우가, 다양한 활동형은 고등학교 이상인 경우, 주거비 중심형은 중학교, 보건의료비 중심형 소비패턴은 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경제적 변수에 따른 소비패턴 유형의 차이를 살펴보니 가계총소득, 가계자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총소득의 경우 소득이 높은 경우 다양한 활동형이나 보건의료비 중심형 소비패턴이 많았고, 식비중심형이나 주거비중심형 소비패턴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가계총자산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이 많은 경우는 다양한 활동형 소비패턴이 주거비중심형보다 높았고, 금융자산과 기타자산도 모두 다른 소비패턴 유형에 비하여 다양한 활동형 소비패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고령층 일인가구의 소비패턴은 가계총소득과 총자산에 의하여 차이를 보이는데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다양한 활동형 소비패턴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군집분석을 통하여 일인가구의 연령대별 소비지출패턴을 연구한 성영애(2013)의 연구에서 중장년층 일인가구(35세~64세)의 소비패턴은 음식숙박비지출 중심형, 식료품비지출 중심형, 주거비지출 중심형과 교통비지출 중심형으로 분류되고, 65세 이상 일인가구는 식료품비지출 중심형, 주거비지출 중심형, 균형지출형과 보건비지출 중심형으로 분류하였다.

〈표 4〉 소비패턴 유형

변수		1군집: 식비 중심형 (n=380)	2군집: 다양한 활동형 (n=413)	3군집: 주거비 중심형 (n=135)	4군집: 보건의료비 중심형 (n=117)	전체	F/ $\chi^2$	
구성비	식비	53.40	32.26	28.12	28.49	38.97		
	주거비	3.11	3.71	29.39	2.83	6.74		
	광열수도비	12.59	17.52	11.71	10.83	14.22		
	피복비	3.58	5.60	3.13	3.37	4.29		
	교통비	6.30	10.28	5.95	5.46	7.73		
	통신비	5.64	6.61	5.05	4.92	5.87		
	문화생활비	2.41	2.79	1.90	2.18	2.47		
	보건의료비	9.18	10.87	8.12	37.51	12.88		
	가구집기 및 가사서비스비	.23	1.43	1.66	1.24	1.00		
	교육·보육비*	.01	.37	.13	.00	.17		
기타소비	3.57	8.54	4.84	3.17	5.65			
소비지출액	식비	3,311.46	2,802.16	2,369.29	2,497.13	2,896.39		
	주거비	213.34	385.13	3,484.76	288.51	715.41		
	광열수도비	743.37	1,297.31	961.41	890.56	1,007.15		
	피복비	224.93	521.20	294.88	301.03	359.64		
	교통비	395.97	1,040.16	512.21	463.49	673.25		
	통신비	333.06	551.22	430.11	403.55	439.81		
	문화생활비	154.52	285.56	154.24	222.65	213.90		
	보건의료비	540.13	853.70	672.18	4,671.41	1,143.79		
	가구집기 및 가사서비스비	15.42	198.48	324.88	215.08	150.40		
	교육·보육비	.63	113.63	22.41	.00	48.06		
기타소비	240.37	1,173.76	515.57	373.84	660.02			
인구통계적변수	연령		74.06(b)	69.65(a)	68.67(a)	73.00(b)	73.00	2.92***
	성별	남	63 (32.30)	83 (42.60)	29 (14.90)	20 (10.30)	195 (100.00)	2.24(3)
		여	316 (37.20)	330 (38.80)	107 (12.60)	97 (11.40)	850 (100.00)	
	취업부	취업	106 (30.20)	170 (48.4)	45 (12.8)	30 (8.5)	351 (100.0)	19.32(3)***
		비취업	273 (39.3)	243 (35.0)	91 (13.1)	87 (12.5)	694 (100.0)	
	학력	무학	155 (46.0)	118 (35.0)	25 (7.4)	39 (11.6)	337 (100.0)	37.74(9)***
		초등학교	144 (33.9)	170 (40.0)	57 (13.4)	54 (12.7)	425 (100.0)	
		중학교	32 (28.6)	46 (41.1)	23 (20.5)	11 (9.8)	112 (100.0)	
		고등학교 이상	48 (28.1)	79 (46.2)	31 (18.1)	13 (7.6)	171 (100.0)	
	경제적변수	가계총소득		12,066.08 (a)	15,165.15 (b)	12,657.00 (a)	13,530.54 (b)	13,531.75
가계자산		총자산	77,700.82 (a)	119,053.10 (b)	52,454.52 (a)	104,020.91 (b)	93,705.08	3.49*
		부동산 자산	71,281.15 (ab)	103,870.99 (b)	47,888.99 (a)	96,743.59 (ab)	83,967.63	2.52
		금융 자산	5,868.94 (a)	13,453.76 (b)	4,511.59 (a)	6,687.92 (a)	8,781.62	5.88**
		기타 자산	597.10 (a)	1,770.90 (b)	247.79 (a)	664.53 (a)	1,023.09	9.72***

중·고령 일인가구를 연구한 본 연구의 소비패턴 유형은 다양한 활동형, 식비중심형, 주거비중심형, 보건의료비중심형 소비패턴으로 나타나 성영애(2013) 연구의 노년층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단독가구의 소비지출 패턴의 유형과 결정요인을 분석한 전상민(2013)의 연구에서 단독가구의 소비지출패턴은 칩거생활지출형, 사교적 가정생활지출형, 의료비지출형, 월세·교통비, 치장·외식·오락비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70대 이상은 의료비 출형이 많다는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경우 중·고령자를 중심으로 연령대 별로 소비패턴 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소비패턴별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주거비중심형 소비패턴은 69세, 다양한 활동형 소비패턴은 70세, 보건의료비중심형 소비패턴은 73세, 식비중심형은 74세로 나타나, 동일한 노년층 안에서도 연령에 따라 소비패턴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층, 노년층 등의 세대에 따라라도 소비패턴이 차이를 보이지만, 동일한 세대라도 연령에 따라 소비패턴 유형이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4.3 삶의 만족도

중·고령 일인가구 소비자의 삶의 만족도의 요인을 분류하고, 단일차원성,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KMO(Kaiser-Meyer-Olkin) 측정치와 Bartlett(Bartlett Test of Sphericity)의 구형성 검정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 측정치는 0.85로 나타나 양호하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카이제곱( $\chi^2 = 3,535.62$ ), 자유도 36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로 나타났다.

주성분 분석방법과 베리맥스(Varimax) 직각회전방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초기에 10개의 문항을 투입하였으나 직업(일) 만족도 문항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외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들의 총설명력은 60.07% 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요인 I(32.60)은 가족관계, 형제자매, 자녀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등 인간관계와 관련된 내용이라 인간관계만족도로 명명하였다. 삶의 만족도 요인II(27.46)는 경제, 건강, 여가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경제/건강/여가만족도로 명명하였다.

〈표 5〉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공통성
	I요인: 인간관계만족도	II요인: 경제/건강/여가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81	.20	.69
형제자매만족도	.74	.20	.58
자녀관계만족도	.73	.14	.55
친구관계만족도	.71	.29	.60
이웃관계만족도	.70	.26	.55
건강만족도	.14	.82	.69
경제적상태만족도	.18	.78	.64
여가활동만족도	.26	.77	.66
주거만족도	.29	.60	.44
고유치	2.93	2.47	
분산	32.60	27.46	
누적분산	32.60	60.07	
Cronbach's Alpha	.83	.78	
평균	3.41	2.89	
KMO	.8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3,535.62(36)***		

삶의 만족도 각 요인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살펴본 결과 요인I: 인간관

계 만족도는 0.83, 요인II: 경제/건강/여가만족도는 0.78로 신뢰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 일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요인별 평균을 살펴보니, 인간관계만족도는 5점 만점에 3.41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제/건강/여가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9점으로 보통수준인 3점보다 낮게 나타나 만족도가 보통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 4.4 연령대, 소비패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중·고령 일인가구 소비자의 삶의 만족도에 연령대와 소비패턴이 상호작용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요인I: 인간관계만족도, 요인II: 경제/건강/여가만족도와 전체 삶의 만족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표 6〉 연령대와 소비패턴 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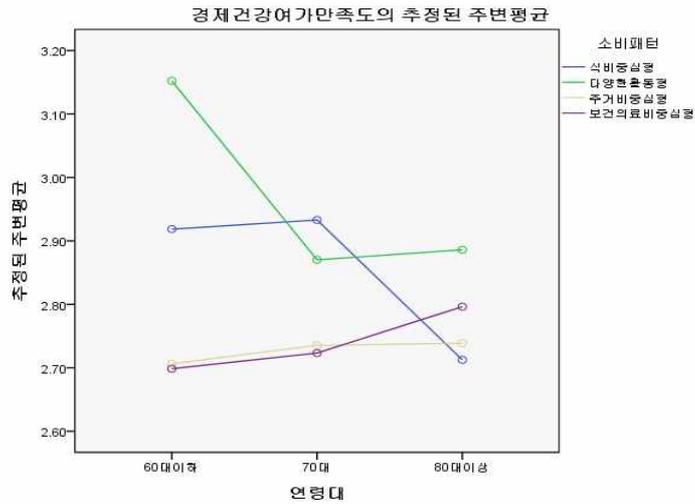
종속변수	분산의 근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비
요인I: 인간관계만족도	연령대	.628	2	.314	.777
	소비패턴	3.069	3	1.023	.151
	연령대*소비패턴	2.573	6	.429	1.419
요인II: 경제/건강/여가만족도	연령대	.775	2	.387	.406
	소비패턴	7.256	3	2.419	2.336
	연령대*소비패턴	6.582	6	1.097	2.961**
전체 삶의 만족도	연령대	.317	2	.158	.254
	소비패턴	4.679	3	1.560	2.314
	연령대*소비패턴	4.278	6	.713	2.792*

중·고령 일인가구 소비자의 삶의 만족도 요인I: 인간관계 만족도에 연령대와 소비패턴이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와 소비패턴 모두 중·고령 일인가구 소비자의 인간관계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중·고령 일인가구 소비자의 삶의 만족도 요인II: 경제/건강/여가 만족도에 연령대와 소비패턴이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60대 이하의 일인가구 소비자는 소비패턴 유형의 경우 다양한 활동형이 경제/건강/여가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식비중심형 소비패턴이 그 다음 순이었으며, 주거비중심형 소비패턴과 보건의료비중심형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70대 일인가구 소비자의 경제/건강/여가 만족도는 60대 이하보다는 낮았고, 80대 이상보다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패턴 유형별로 살펴보면 식비중심형의 경제/건강/여가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양한 활동형의 소비패턴은 만족도가 급격하게 낮아져 식비중심형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중심형 소비패턴과 보건의료비중심형 소비패턴은 경제/건강/여가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80대 이상의 일인가구 소비자는 전반적으로 낮은 연령층에 비하여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소비패턴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양한 활동형이 경제/건강/여가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비중심형 소비패턴이 그 다음 순이었으며, 주거비중심형, 식비중심형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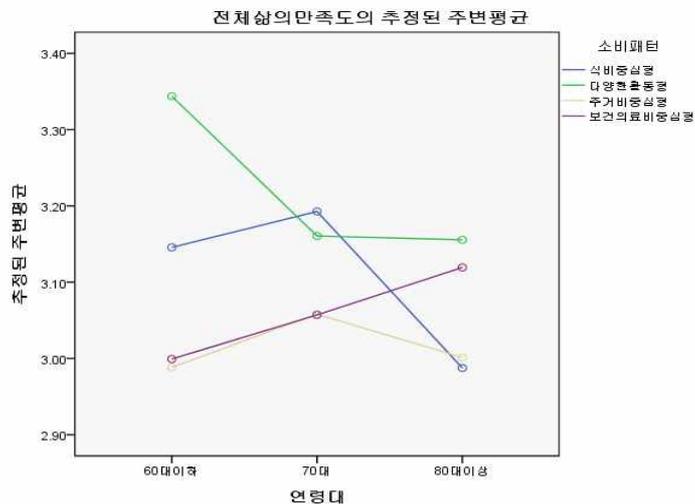
정리하면 중·고령층 일인가구 소비자의 경제/건강/여가 만족도는 다양한 활동형 소비패턴유형이 전반적으로 높았는데 60대 이하인 경우 가장 높았고, 80대 이상, 70대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0대의 경우 식비 중심형에 비하여 다양한 활동형 소비패턴의 만족도가 오히려 낮게 나타나 연령과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비중심형 소비패턴은 70대의 경우 경제/건강/여가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60대 이하, 8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는데 80대 이하의 경우 급격하게 만족도가 낮아져 연령과 상호작용 효

과를 보였다. 주거비 중심형은 80대 이상의 일인가구 경제/건강/여가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70대, 60대 이하 순이었으나 연령대에 따라 만족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반면에 보건의료비중심형은 80대 이후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연령대와 소비패턴이 경제/건강/여가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중·고령 일인가구 소비자의 전체 삶의 만족도에 연령대와 소비패턴이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 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60대 이하의 일인가구 소비자의 전체 삶의 만족도는 다양한 활동형 소비패턴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식비중심형 소비패턴, 보건의료비 중심형 소비패턴, 주거비중심형 소비패턴 순으로 나타났다. 70대는 식비중심형 소비패턴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양한 활동형의 만족도는 그 다음 순이었고, 보건의료비 중심형과 주거비중심형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0대 이상은 다양한 활동형 소비패턴이 가장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보건의료비 중심형 소비패턴이 그 다음 순이었고, 주거비 중심형 소비패턴, 식비중심형 소비패턴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연령대와 소비패턴이 전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정리하면, 연령대와 소비패턴유형이 상호작용을 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다양한 활동형 소비패턴이 중·고령 일인가구 소비자의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70대의 경우에는 식비 중심형 소비패턴이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비중심형 소비패턴은 70대의 경우 전체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60대 이하, 80대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80대 이상의 경우 만족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건의료비나 주거비 중심형은 삶의 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는데, 보건의료비중심형 소비패턴은 80대 이상의 경우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증하는 일인가구의 소비패턴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특히 50세 이상의 중·고령 일인가구 소비자를 중심으로 소비패턴을 유형화하고,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삶의 만족도 향상에서 소비패턴이 가지는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층 일인가구의 소비지출액과 구성비를 살펴보니, 평균 소비지출액은 8,308천원으로 높지 않았고, 식비와 광열수도비 등의 필수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건의료비가 전체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피복비나 문화생활비, 교육·보육비는 거의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고령층 일인가구의 소비패턴 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식비중심형, 다양한 활동형, 주거비중심형, 보건의료비중심형 소비패턴으로 분류되었다. 식비 중심형은 평균 74세로 여성, 비취업자, 무학인 일인가구 소비자가 많았으며, 가계총소득과 총자산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활동형은 평균 70세 이었고 남성, 취업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의 일인가구 소비자가 많았고, 가계총소득과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주거비중심형은 평균 69세의 일인가구 소비자로 남성, 비취업, 중학교 수준의 학력을 가진 소비자가 많았다. 가계총소득과 가계자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 중심형은 평균 연령이 73세이었고, 여성, 비취업자, 초등학교, 무학수준의 학력이 많았으며 가계총소득과 총자산이 다른 소비패턴 유형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고령층 일인가구 소비자의 삶의 만족도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요인I: 관계만족도, 요인II: 경제/건강/여가만족도로 명명하였다. 중·고령층 일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관계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41로 보통수준보다 약간 높았고, 경제/건강/여가만족도는 2.89로 보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고령층 일인가구 소비자의 삶의 만족도에 연령대와 소비패턴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 요인I: 인간관계만족도는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삶의 만족도 요인II: 경제/건강/여가만족도와 전체 삶의 만족도에는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 일인가구 소비자의 소비패턴 유형을 살펴보면 가계총소득과 자산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소비패턴 유형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양한 활동형 소비패턴은 60대와 70대 초기의 일인가구 소비자의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러한 소비패턴은 가계총소득이나 자산이 주요한 영향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비취업자보다 취업자가 다양한 활동형 소비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고령 일인가구 소비자의 소득창출과 증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요구된다. 취업의 형태가 전일제가 아니어도 가교형태의 일자리 창출은 식비중심형이나 주거비중심형의 소비패턴을 보이는 일인가구 소비자의 소득수준을 높여 다양한 활동형 소비패턴으로 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중·고령 일인가구 소비자의 소비패턴 유형 중에 보건의료비 중심형을 살펴보면 평균 73세의 연령의 소비자가 많이 경험하는 소비패턴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보건의료비 중심형의 소비패턴의 경제적 수준이 다른 소비패턴보다 높게 나타나, 가계총소득이나 가계총자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층의 정부보조에서 기인한 가계부담완화로 생긴 현상인지 아니면 보건의료비에 소비지출을 하는 것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한지 추가 심층분석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에서 중·고령 일인가구 소비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할 경우, 특히 심신이 건강하지 않은 일인가구 소비자 관련 정책 마련 시 경제적인 상태나 가계소비지출 구조를 파악하는 세심한 맞춤형 정책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셋째, 중·고령 일인가구 소비패턴 유형을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주거비중심형 소비패턴은 69세, 다양한 활동형 소비패턴은 70세, 보건의료비중심형 소비패턴은 73세, 식비중심형은 74세로 나타나, 동일한 노년층 안에서도 연령에 따라 소비패턴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고령층 일인가구의 소비패턴은 연령이 주요한 영향변수로, 연령이 높을수록 일인가구의 소비지출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보건의료비지출형이나 식비중심형 소비패턴은 70대 중반이후의 주요 소비패턴 유형으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 마련 시 연령을 고려한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 VI. 참고 문헌

- 김성희, 정지영, 주영애(2002), 단독가구 노인의 생활만족도 분석 - 여주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교양학회지, 9, 145-164.
- 김시월, 조향숙(2014), 단독가구의 부채유형이 가계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17(1), 157-178.
- 김시월, 조향숙(2013), 베이비붐 세대의 재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취업자와 비취업자의 비교분석, Fiancial Planning Review, 6(3), 1-33.
- 김시월, 조향숙(2012), 중·고령자 단독가구의 삶의 만족도와 재정, 건강, 심리 상태와의 관계, Fiancial Planning Review, 5(3), 89-116.
- 김희주, 주경희(2008), 한국적 성공적 노후척도를 활용한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1, 125-158.
- 김재형(2008), 서울시 1인 가구의 거주지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네이버국어사전(2013), <http://krdic.naver.com>.
- 반정호(2012),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변화, 월간 노동리뷰, 2012-4, 한국노동연구원, 55-67.
- 변미리(2009), 서울의 1인가구 현황과 도시정책 수요,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09, 한국행정학회, 1-16.
- 서병숙, 이신숙(1991), 농촌 기혼여성 노부모 부양의식 부양 수행도, 한국노년학, 11(2), 191-211.
- 서지원(2012), 베이비부머 가계의 경제구조 및 경제적 만족도 분석, 한국가정자원경영학회지, 16(1), 41-66.
- 성영애(2013),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본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소비지출패턴, 소비자학연구, 24(3), 157-181.
- 송유진(2007), 사별 후 혼자 사는 노인 1인가구의 특성-지역별 분포와 사회경제적 특성,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1), 147-160.

- 심영(2002), 독신가구의 경제생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97-208.
- 안경숙(2005), 노인부부가구, 노인독신가구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노년학, 15(1), 1-19.
- 여윤경(2003),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소비패턴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1-12.
- 이혜원(1998), 노인복지론: 이론과 실제, 유평출판사.
- 임연옥, 박재연, 윤현숙(2011),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노부모 세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33, 7-44.
- 유병규, 조호정, 전선형(2010), 국내 1인 가구의 7대 구조적 특징: 1인 가구의 저소득·고령화 심화, 경제주평, 10(14), 1-14.
- 전상민(2013), 단독가구의 소비지출패턴의 유형 및 결정요인 분석, 소비자문제연구 44(3), 21-43.
- 정순돌, 이현희(2012), 베이비붐세대의 삶의 만족도-1998년과 2008년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55, 105-132.
- 정운영, 정세은(2011), 1인 노인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 연구: 저소득가구와 고소득 가구의 비교, 한국노년학 31(4), 1119-1134.
- 조만, 이창무(2014), 고령화·소가족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시사점 분석, KDI Focus, 39, 1-8.
- 조성철(2012), 수도권 1인 가구 주택수요 전망과 주택공급 분석,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경옥(2006), 남성 1인 가구의 경제구조 분석: 연령 및 혼인상태에 따른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253-269.
- 채옥희(2000), 농촌 노인단독가구의 가정경영 실태와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8(3), 85-97.
- Abdel-Ghany, Mohamed and Deanna L. Sharpe (1997), "Consumption Patterns Among the Young-Old and Old-Old,"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1(1), 90-112.
- Denton, Frank T., Dean C. Mountain, and Byron G. Spencer(2006), "Age, Retirement, and Expenditure Patterns: An Econometric Study of Older Households," Atlantic Economic Journal, 34(4), 421-434.
- 통계청(2012),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0-2014, <http://kostat.go.kr>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1990-2012), <http://kostat.go.kr>